詩·文으로 깨달음에 이르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② 도연명 '詩選'

도연명(陶淵明)이 살았던 시기(365~427)는 동진(東晉, 317~419)에서 송(宋, 420~479)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난세였다. 육조(六朝)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지만 문화사적으로는 빛나는 특색을 지닌 시대였다. 춘추전국시대에 문화와 사상이 비약적으로 발달 하였듯이 이 시대 역시 못지않았다. 춘추전국시대와 차이가 있다면 불교가 비로소 지식계급에 뿌리를 내려 발전하고 또한 도교가 종교로서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각종의 사상체계들이 동시에 존재하여 서로 영향을 끼친 시기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도연명의 작품과 인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의 가문에서 가장 출세한 인물이었던 도연명의 증조부 도간(陶侃, 259~334)은 서진(西晉, 265~317)왕조가 멸망할 때 동진왕조의 건립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지만 품급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문벌 사회에서는 냉대를 받아야 했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문벌들은 도간의 세력이 커질 것을 경계했으므로 그나마 가진 지위나 명망은 점차로 경감되어갔다. 도연명이 태어났을 때엔 완전히 몰락하여 오늘날까지 부친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을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연명의 집안은 역시 진나라의 사족이어서 어려서부터 가난하나마 글을 배울 수 있었다. 주로 유가(儒家)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의 학식은 보수적 문인 계층에 속했다. 도연명은 어려서부터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의지가 있었고 출사(出仕)도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전원으로 물러나 농사를 지었다.

〈음주(飮酒) 기십구(其十九)〉에 '오래 굶주렸으므로 농사를 버리고 벼슬에 올랐으나, 역시 가족을 부양할 길이 없고 추위와 굶주림은 여전했다. 당시 30을 바라본 나는 평소의 신조에 비추어 창피한 바 있어 의연히 결심을 하고 옷 털고 농촌으로 되돌아왔다.(疇昔苦長飢 投 去學仕. 將養不得節 凍 固纏己. 是時向立年 志意多所恥. 遂盡介然分 拂衣歸田里)' 고 쓰고 있다.

그가 그 후의 몇 번의 출사에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번번이 전원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면 그의 천품이 벼슬살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인생은 대략 3기로 나눌 수 있다.

성장기부터 29세까지를 1기로 보는데 이때는 출세의 의지가 있기는 했지만 배경이 약해서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젊은 시절이다. 생계를 잇기 위해 강주(江州)의 좨주(祭酒)로 출사했던 29세부터 팽택령(彭澤令)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가기 전(41세)까지가 2기다. 출사와 은퇴를 다섯 번이나 되풀이 했던 좌절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 사상과 신념이 다져진 단련의 시기이기도 하다. 3기는 41세 이후 죽을 때(63세)까지다. 전원에 은둔하면서 체득한 정서와 사상들은 대부분 이때의 작품으로 기록된다.

득의망언(得意忘言)의 경지

도연명의 작품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노래한 노장사상이 들어있는 것이 많다. 〈귀거래혜(歸去來兮)〉에 그 심경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자연을 좋아하는 본성은 고칠 수 없다.(質性自然 非矯 所得)' 라던지 〈음주5〉에서 '동쪽 울타리 밑에 핀 국화꽃을 꺾어들고 / 멍하니 남산을 바라보네 / 산기운은 저녁나절에 좋고 / 나는 새도 함께 돌아오네 / 이 가운데에 참 뜻이 들어 있으니 / 따져 말하려 해도 이미 말을 잊었노라(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眞意 欲辨已忘言)' 고 한 득의망언(得意忘言) 경지,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의 자연과 계합한 무심(無心)도인의 경지에서 탈속한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양(陽) '3은(三隱)' 중의 한 사람으로 주속지(周續之), 유유민(劉遺民)과 함께 당시 불교계를 이끌던 혜원(慧遠)법사의 백련결사(白蓮結社)에 동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임의 주역인 유유민은 그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차례 출사했지만 좌절·은퇴
은둔하며 뛰어난 저작들 남겨
3隱 중 한명… 백련결사 참여

空과 無로 돌아가리

그는 송백같이 살고 싶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웠다. 포악한 유유(劉裕)가 공제(恭帝)를 유폐시키고 국호를 송(宋)이라 하고 도연명을 저작랑이란 벼슬에 초청했으나 예물을 돌려보내고 끝까지 출사를 거부했다. 스스로 밭에 나가 농사를 지어 궁경(躬耕)했다.



중국 명나라 화가 장붕(張鵬)의 '도연명취귀도(陶淵明醉歸圖).' 도연명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평담(平淡)한 시풍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경시를 받았지만, 당대 이후는 6조(六朝) 최고의 시인으로서 그 이름이 높아졌다. 그의 시풍은 맹호연(孟浩然) , 왕유(王維), 저광희 등 많은 시인들에게 영향을 줬다.

〈음주16〉에서는 '결국 빈곤에 굴하지 않은 절개를 지닌 채 / 싫도록 굶주림과 추위만을 겪었노라' 는 경포고궁절(竟抱固窮節)을 술회한다.

"만약 운명대로 가난을 지키지 않는다면 / 평생 지닌 정절 앞에 길이 뉘우치리" 〈음주15〉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운명대로 가난하게 살지언정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

사진으로 본 그의 무덤에 새겨진 '진징사도공정절선생지묘(晉徵士陶公靖節先生之墓)' 에서 정절(靖節)이란 글자가 유독 눈길을 끌었다. 징사란 부름을 받고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선비를 가리킨다. 그의 높은 정절을 흠모하는 퇴계 이황은 '화도집음주(和陶集飮酒)' 20수를 지었고 소동파도 100여 편의 화작시를 지었다.

구양수는 "진(晉)에는 글이 없고 오직 도연명의 〈귀거래사〉만이 있다"고 할 정도였다. 도연명은 "현실적으로 나는 부귀도 바라지 않고 또 죽은 후에 천제(天帝)가 사는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천지조화의 원칙을 따라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자"고 〈귀거래사〉에서 노래한다. 또한 〈음주8〉에서는 "삶은 꿈과 환상이거늘, 왜 진세의 구속에 매어야 하나(吾生夢幻間 何事 塵羈)"를 읊조린다.

空과 無 노래, 득의망언 경지
'자제문', 시인의 생명관 담겨
"인생은 덧없는 꿈과 같은 것"

'오생몽환간(吾生夢幻間)', '인생은 꿈 같다' 는 구절은 〈금강경〉 4구게를 다시 읽는 것 같다.

인생은 어차피 허깨비(人生似幻化)
끝내는 공(空)과 무(無)로 돌아가리
(終當歸空無)

〈귀원전거4〉中

인생은 환(幻), 환인줄 알고 환을 여의면 이미 깨달음이다. '이환즉각(離幻卽覺)', 〈원각경〉의 한 대목이 생각난다. 도연명은 이미 공도리(空道理)를 체득한 달인이었다. 또한 그는 형영신(形影神)연작시 3수를 지었다. '몸이 그림자에게(形贈影)', '그림자가 몸에게(影答形)', '정신의 해탈(神釋)' 등이 그것이다.

몸이 그림자에게 말한다. "나는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를 재간이 없으니 필경 죽으면 그꼴이 되리라. 그림자여, 자네도 내 말을 이해하고 술잔 들고 사양말고 훌쩍 마시게나."

신석(神釋)으로 해탈한 도연명

도연명의 생명관은 자신이 죽기 2달 전에 쓴 〈자제문(自祭文)〉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

〈자제문〉은 '때는 정묘년 9월. 하늘은 차고 밤은 긴데, 바람기운이 삭막하기만 하고 기러기들은 날아가고 초목은 누렇게 시들어 떨어진다. 도(陶)아무개는 장차 임시로 몸담았던 객사를 떠나 바야흐로 영원한 본연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로 시작한다.

이어 '내 무덤에는 봉토도 안 할 것이며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로 세월과 더불어 스러지게 하리라. 생전에도 잠시 기우한 속세의 명예 같은 것을 높이 여기지 않았거늘, 그 속세의 행적을 적어 높이고 노래할 사람이 누구라 있겠는가? 돌이켜 생각하니, 나는 참 어려운 삶을 치르었다. 헌데 이제부터 사후의 세계는 또 어떨는지? 아! 애달프구나!(不封不樹 日月遂過 匪貴前譽 執重後歌 人生實難 死如之何 嗚呼哀哉)' 로 끝을 맺는다.

탈속한 도인일지라도 인생 실난(實難)을 언급하며 마지막 구절에 그가 토로한 '오호애재' 는 사람의 한계를 실감케 하는 참으로 인간미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아! 애달프구나!' 그의 인생의 결구(結句)다.

도연명은 자신의 작품 중에서도 이 시를 높게 평가한 것 같다. 그의 대부분의 시들이 서정과 서사 위주인데 이 시는 입언(立言) 형태를 적용했다. 입언이라 함은 자신의 논리나 주장이 후대에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그는 작가로서 대단히 창의력이 두드러졌다. 자신을 철저히 객관화시켜서 쓴 자서전격인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 자신을 제상에 올려놓고 스스로 지은 〈자제문(自祭文)〉, 상여에 실려 무덤으로 가는 자신을 그린 〈만가(挽歌)〉 등은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이다. 뿐만 아니라 혜원에게서 차용한 형(形)과 영(影)을 논쟁을 벌이게 해 놓고 신(神)을 세워 혜원에게 하고 싶은 말- '신멸(神滅)' 을 말 할 수 있는 그는 가히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고승(高僧)만 해탈하는가? 도연명은 시로써 해탈했다고 하겠다.



김삼진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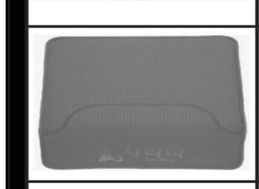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의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법인등록번호 : 205421-0000520

대한민국의 승려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으로 병들어 가는 한국 불교를 바로 잡아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를 펼쳐 나갈 사찰 및 각 지역 교구장, 종도님을 널리 모십니다.

사찰등록신청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 인감증명서 2통
- 임대일 경우(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주지 임명 관련서류
- 서약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3매 (여권사진 규격)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개인사암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
전라남도 영암군 산호리 614번지 ☎ 062)222-6366
대구시 동구 파계로 120길 91-1 자인사 종무실
010-6399-0020 / 팩스 053)984-1129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제1기생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